

## 공동체와 문화 Ⅲ

### 성경은 '가능'과 '불가능'을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

#### 1. 예수님의 간구

[마태복음 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NIV)

예수님의 간구를 주목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다.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말이다.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게 하는 것이다. 경계선이 없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완전함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할 완전한 장소이다. 물리적 장소의 개념을 넘는다.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2. 경계선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늘과 분리된 땅이 주는 경계선 안에 있다. 그 경계선이 무엇일까? 바로 '죄인된 생각'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절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즉, '선교적 삶'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것이 선교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주님은 땅 끝까지 확장시키라 말씀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의 능력과 자원이 있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본다. 공동체의 능력을 본다. 그리고 그 능력만큼만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 예루살렘만을 할 수 있는 능력, 확장된 유대와 사마리아만을 할 수 있는 능력, 더 확장된 땅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차등으로 정해져 있는가? 그 차등의 경계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능력을 요구하시고, 능력에 맞는 기준으로 검증하시는가? 인원, 재정을 물으시는가?

주님의 방법은 분명했다. '권능'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능이란 무엇인가? 권세와 능력이다.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다. 능력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 권능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정체성은 존재에 관한 것이다. 존재의 확인은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그 권세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주어진 '능력'이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 안에 구원 받은 우리가 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있다. 우리의 능력과 공로가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의 말씀이 중요하다.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 3. 극단주의적 태도

은사와 능력이 성령이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성령님 자체를 구해야 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은사주의 성령운동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보여지는 현상에 치중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대로 은사폐기론자들도 위험하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 초자연적이다. 내 경험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내 이해와 경험이 진리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극단주의적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진리는 극단성 위에 존재한다.

### 4. 라이프 스타일

#### (1) 믿음은 움직임이고 도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신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들이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치유와 기적, 축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등)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경계선'을 지우라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구인가?" 라는 말이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예와 아멘이고, 도전이다. 믿는 자가 도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다.

#### (2) 회개함으로 경계선을 허물라.

죄악된 연약한 생각이 나를 본다. 나를 보고,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결정하여 살아간다. 잘 살아가는 것 같으면 기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침체된다. 물론 당연하다. 이런 기복적 신앙이 되는 이유는 하나이다. 회개를 모르기 때문이다. 십자가 승리의 자리에서 연약한 나를 회복된 존재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이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 넘어질 수 있다. 연약할 수 있다. 그 때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된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 회개가 삶이 되어야 한다. 회개하는 삶에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

#### (3) 거짓 선지자, 샅꾼을 분별하고 조심하라.

[마태복음 24:11, 24]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요한일서 4:1]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성경은 거짓 선지자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미혹에 있다. 미혹은 무엇인가? 에덴동산의 뱀처럼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분별해야 한다. 잘못된 복음, 인간의 생각에 갇혀있는 복음, 복음을 이념과 철학 아래에 있게 하는 모든 시도를 분별해야 한다. 분별의 키는 오히려 분명하다. 사도행전 1:8절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는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다.

#### (4) 위로인가? 도전인가?

거짓 위로를 조심하라. 거짓 위로는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다. 주저 앉히는 것이다. 진짜 위로는 격려이다. 세우는 것이다. 힘을 얻게하는 것이다. 포기하게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 경계선을 허무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조이풀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향한 도전하는 문화가 일어나야 한다. 진짜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실재가 이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을...

- 언어훈련, 생각훈련, 그리고 도전하고 움직이는 훈련.